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日帝下の 韓國 基督教 教育과

그 特性에 관한 研究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Christian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under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1920s and the 1930s-

2000 年 2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京 蘭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日帝下の 韓國 基督教 教育과

그 特性에 관한 研究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Christian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under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1920s and the 1930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 年 2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朴 京 蘭

朴京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 年 2 月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 論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4. 연구의 제한점	3
II. 基督教 教育의 成立 背景	4
1. 정치적 배경	4
2. 경제적 배경	5
3. 사회적 배경	7
4. 교육적 배경	8
5. 종교적 배경	11
III. 韓國 基督教 教育의 變遷	13
1. 1910년 이전의 기독교 교육	13
2. 1910년대의 기독교 교육	16
3. 1920년대의 기독교 교육	19
4. 1945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교육	21
5. 선행연구의 고찰	23
IV. 日帝下 韓國 基督教 教育의 形態와 教育內容	26
1. 기독교 교육의 민족교육운동	26
2. 학술 강습회	31
3. 하기 아동 성경학교	42
4. 주간 성경학교 및 성경 구락부 운동	46

V. 日帝下の 基督教 教育의 特性	50
1. 선교적 특성	50
2. 교육적 특성	53
3. 민족운동적 특성	56
VI. 要約과 結論	59
1. 요약	59
2. 결론	61
3. 제언	63
參 考 文 獻	64
ABSTRACT	69

表 目 次

〈표 1〉 농민 계층의 영락화 과정	6
〈표 2〉 1929년도 한국인, 한국 내 일리아동 취학을	10
〈표 3〉 1936년도 보통학교 취학을(한국인)	10
〈표 4〉 일제하 한국 교회 수 및 교인 수 통계	12
〈표 5〉 사립학교 통계	27
〈표 6〉 별학당 통계	28
〈표 7〉 야학 통계	29
〈표 8〉 강습소 통계	29
〈표 9〉 유치원 통계	30
〈표10〉 하기 아동 성경학교 통계	30
〈표11〉 학술 강습회의 설립자 구성표	32
〈표12〉 야학 일람표	35
〈표13〉 야학 학교 당 평균, 교사 수	37
〈표14〉 강습소 평균 교사 수	38
〈표15〉 학술 강습회 평균 학생 수	39
〈표16〉 학술 강습회 연간 경비액	40
〈표17〉 1930년 야학 재정현황	40
〈표18〉 하기 아동 성경 학교 일람표	43
〈표19〉 주산 성경 학교 수업 시간표	47
〈표20〉 1922년 노동자 교육 현황 상황	54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서 여러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본 연구의 중요관심은 기독교 교육에 있다. 기독교 교육의 선교 방법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기록대로 예수께서는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의 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셨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힘썼던 일은 교육이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무지를 계몽하여 새로운 세계를 밝혀 주는 서구식 학교들을 설립하고 교육에 힘쓰므로 한국 민족의 포교 금압 정책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교육을 갈구하던 백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활발한 활동과 함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 왔다.

한국 기독교 교육은 초기에는 선교의 목적으로 학교가 세워졌으나 점점 국가 공 교육기관에 의하여 교육이 독점되면서 기독교 교육은 민중계몽을 하려는 원래의 사명감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00여 년의 한국의 기독교 교육사 가운데에서, 외적인 종교교육에 대한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훌륭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과거의 정신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루어졌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은 여러 가지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적 환경이 무 종교적이며 전체주의 국가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한국 기독교 교육은 무시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 당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기독교 교육은 해방신학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민족사관과 민중사관의 측면에서 이 시대를 해석하려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제하 기독교 교육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을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성경적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하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교육적 위기와 혼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얻기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일제하 1920년대~1930년대의 한국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형태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였으며, 그 당시의 기독교 교육에 특성이 무엇인가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기독교 교육의 성립 배경을 연구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의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셋째 기독교 교육의 민족적 교육운동과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넷째 기독교 교육에서 주간 성경학교의 경영실태와 성경 구락부 운동의 발전과정을 조사·연구한다.

다섯째 당시의 기독교 교육의 특성을 모색하려 한다.

3. 研究의 內容과 方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먼저 기독교 교육의 성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기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제하 전 기간을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 조사하여 기독교 교육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일제하 기독교 교육의 형태와 내용 즉, 학술 강습회, 하기 아동 성경학교, 주간 성경학교와 성경 구락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교육의 성격이 선교적, 교육적, 민족운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해명하여 일제하 기독교 교육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평가해 보련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일제하 기독교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있던 기본자료와 교육현황을 알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1회-23회), 동아일보 신문기사, 기독교 교육에 관한 잡지, 간행물로 있었던 교육교재들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이차적으로는 이미 출간 된 단행본 등 선행연구한 논문 연구자료들을 통하여 조사·분석하여 정리하려 한다.

4. 研究의 制限点

본 연구는 일제하의 한국 기독교 교육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제하의 전 기간의 기독교 교육을 취급하여야겠으나, 그 당시에 기독교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는 교육운동을 중심하여 연구를 진행하려한다. 일제하의 기간 중 1910년대는 별다른 독특한 성격의 교육운동이 없는 기간이며, 1940년대는 한국 기독교가 그 정체성을 상실한 시기였으므로,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의 형성 과정의 시기이라고 볼 수 있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Ⅱ. 基督教 教育의 成立 背景

1. 政治的 背景

19세기 중엽 오랜 쇠국정책을 하던 대원군이 일본과의 수교를 거부하자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고종 13년(1876년) 병자 수호조약을 맺어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고, 한국은 다시 미국, 영국, 이태리, 러시아, 불란서 등 기타 여러나라와 통상을 맺으면서 친정, 친일, 친미, 친로 등 외세 가운데 보수파와 개화파의 대립이 폭발되던 중, 반일 세력으로 일어난 민족적 반항인 고종 19년 임오군란에 이어 또한 반청 세력으로 일어난 봉건적 모순을 타파코자 친일 개혁파의 쿠데타 갑신정변이 고종 21년에 일어났다.¹⁾

1910년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한국의 정치권력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으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통치는 1919년 3월 1일 삼일운동을 통하여 그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920년대에는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지배 정책을 감행하게 되었다. '문화정치'라 함은 종전의 노골적인 지배를 은폐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우건을 걸고 동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상류층 인사를 매수하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자유를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병력과 경찰력을 확충해 가는 교묘하고 교활한 분열 정책이었다.²⁾

1) 장종철, 기독교 교육역사(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3), p.416.

그러나 민족운동과 각종 사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자 일제는 종전의 문화정치라는 탈을 벗고 1925년의 치안 유지법, 1928년의 개정 치안 유지법 등을 공포하고 잔인하게 민족운동을 탄압하였다. 1931년 일제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노골적으로 군국주의 색채가 짙어 지면서 본격적인 수탈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31년부터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기지화 정책을 시행하고 억압을 강화한다.

이러한 일제의 지배는 '미나미'가 1930년 8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신사참배 강요, 징병제 실시 등 조선 민족의 말살을 위한 폭압 정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1931년 '우카키'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하여 농민층에 대해 수탈을 감행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의 병장기 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해방의 그날까지 일제는 실로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폭압정치로 이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며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 몰게 되었던 것이다.³⁾

2. 經濟的 背景

19세기 중엽의 사회상을 보면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집권자들이 갈팡질팡 할 때, 국고는 탕진되고 뇌물로 관직이 매매되고, 농민은 착취당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한일 합병 이후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전형적인 식민 경제로 전락했으며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하여 종래의 관유지는 물론 무주지 국유화의

2) 송건호, 한국 현대사론(서울 : 한국신학 연구소, 1979), pp.66-77.

3) 송건호, 한국 현대사론(서울 : 한국신학 연구소, 1979), pp.66-77.

4) 장종철, 전계서, p.416.

3. 社會的 背景

19세기 중엽의 사회상을 보면, 양반계급의 모진 착취와 압박에 대항하여 일어난 동학난(1894년)은 차츰 그 세력이 커지다 외세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청, 일의 충들을 가져온다. 이때 일어난 민족의 자립과 민권의 확립을 위하여 서양 민주사상을 배운 지식층이 단체를 조직하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투쟁하였다. 이때 일어난 혁신 단체는 독립협회, 교육 진흥단체인 대한자강회가 조직되고, 한성순보(1883), 독립신문(1896), 황성신문(1896), 제국신문(1898), 대한 매일신보(1905), 만세보(1906) 등의 언론기관이 잇달아 세워졌고 민간신문인 독립신문(1896)은 날카로운 필봉으로 주체성 없는 정권을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민족적 각성과 민권사상을 고취시켰으며, 대한매일신보는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모든 언론기관의 사회계몽과 자주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다.⁷⁾

한일 합병 이후 한 민족은 안악사건, 105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비밀 결사운동으로 항일 민족운동을 단행했으며, 사립 교육기관을 통해 전개되던 민족운동은 삼일운동을 통하여 거족적으로 폭발하게 된다. 삼일운동 이후 국내외 상황이 변화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운동이 도입되면서 국내외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농민들은 소작쟁이와 농민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학생들은 6. 10만세 사건과 광주 학생사건 등 활발한 학내, 학외 비밀결사를 통하여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각성을 통한 사회 개혁운동을 주로 하였으며, 많은 청년 단체들이 설립되어 민족운동과 민중운동을 주도하였다.

7) 장종철, 전계서, p.416.

이러한 사회운동은 민족 해방과 민중해방을 목표로 하면서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민중의 계몽에 주력하고 실제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론을 실천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 이들 운동은 산간회와 근호회를 통해 결집되고 눈부신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치안 유지법으로 민족운동을 탄압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합법 운동시대가 막을 고하며 지하운동으로 변모하게 된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20년대의 격렬한 투쟁양상은 점차 지하로 숨어들고 계몽운동과 약학과 강습소 등을 통한 교육운동이 지배적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게 되며 1929년부터 조선 일보에서 실시한 문자 보급운동과 1931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브나르드'운동은 1934년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글을 보급하면서 계몽운동을 벌였으나 1935년 일제의 의한 탄압으로 중지하게 되었다.⁸⁾

이 시기의 사회운동의 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우익 민족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된 온건한 경제 운동 및 교육 운동 그리고 문화 운동과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극렬한 경제투쟁과 지하운동의 양상이다.

4. 教育的 背景

우리의 교육은 국민의 다수보다도 소수 양반이나 사대부의 자제를 위한 교육제도였다.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으며 전국 각 처에는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나 서당이 있어 한식교육을 베풀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영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전통적 교육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

8)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pp.224-227.

교 등의 기독교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기독교적 인간형성과 사회봉사에 두었다. 미션학교 보다 앞서 고종 20년(1883년)에는 독일인 정부 고문 ‘모렌도르프’가 설립한 통변학교가 있었다.

한국 강점 이후 일제는 황국 신민화 등의 정책 슬로건과 함께 동화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민족의 말살을 획책했다. 1911년 8월의 제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하여 천자의 은택을 입게하여 문명의 민으로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며 금후의 조선의 교육은 제국 신민다운 자질 품성을 구비하는 것을 주안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⁹⁾ ‘시라소니’ 총독은 일본 신민화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의 보급, 소위 중량한 제국 신민, 그리고 그들의 밀을 잘 듣는 실용적 근로자. 나급 관리, 사무원의 양성을 목적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¹⁰⁾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적 특질은 식민지 제 민족의 우민화, 노예화, 아 일본인화, 즉 동화 교육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화교육의 구체적 실천 내용은 일본어 교육의 강제, 일본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 등의 주입, 근대적 생산기술 전수 등이었고 그것들은 근대적 학교제도의 이식을 통하여 실현시키려 했다.¹¹⁾

1919년 삼일운동을 계기로 민중의 교육열이 눈에 띄도록 높아지게 된 민중들은 구국 열망이 교육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다. 거족적인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중의 마음에는 힘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게 되고 민족이 독립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은 내지 연장주의의 방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그 특징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채택하여 소위 내선공학을 규정

9) 정재철, 일제식민주의 교육의 양태,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편, 역사와 기독교 제6집 교육과 사회(서울 : 민중사, 1983), p.93.

10) 손인수, 전계서, pp.98-99.

11) 정재철, 전계서, p.95.

하고 형식상 이른바 일시동인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일본 준거에 의한 일본인화 교육을 강화하였다.12)

1943년의 제4차 조선 교육령은 태평양전쟁의 패색과 관련하여 황국 신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학교교육을 전면적으로 군사 목적에 봉사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었다. 즉 전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 학생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그들의 육체, 지식, 기술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참고로 초등학교의 조선인 취학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표 2〉 1929년도 한국인, 한국 내 일리아동 취학율

취 학 인	인 구	학령아동수	취학아동수	취학율
한 국 인	20,437,219	2,450,000	487,878	19.9%
일 본 인	527,904	57,300	67,214	99%

〈표 3〉 1936년도 보통학교 취학율(한국인)

학령 아동 총수	2,769,304인
취학 아동수	714,209인
백분율	25%
남자 아동 취학율	43%
여자 아동 취학율	13%
도시 남자 아동 취학율	79.8%
도시 여자 아동 취학율	43.4%
농촌 남자 아동 취학율	38.3%
농촌 여자 아동 취학율	9.1%

자료 : 동아일보 1936년 2월 2일

12) 정재철, 전계서, p.95.

13)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서울 : 탐구당, 1979), pp.22-23.

5. 宗敎的 背景

초기의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내세운 중요한 선교 사업을 살펴보면 1885년의 광혜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는 병원설립과 의료활동을 통한 선교사업, 그리고 신식학교 설립과 교육을 통한 선교사업 그리고 고아원 사업과 신문발간을 통한 선교사업을 들 수 있다.¹⁴⁾

교육에 대한 강조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교육 사업이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885년 4월 입국한 ‘언더우드’ 목사는 한국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알렌’의사 개설한 광혜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침으로써 한국에 대한 봉사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1893년 조직된 “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가 채택한 선교정책을 보면 제2항에서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도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고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감리교의 선교정책 역시 교육정책에 차원 깊은 집착을 하고 있다. 감리교는 장로교와 달리 교육 일반에 주력함으로써, 그것으로 복음전도의 한 수단으로 삼는 폭넓은 방법을 원용하고 있었다.¹⁶⁾

초기의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성년을 중심으로 한 사경회와 장

14)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서울 : 지식산업사, 1984), pp.12-26.

15) 민경배, 전계서, pp.21-23.

16) _____, 상계서, p.194.

년 주일학교 그리고 유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 주일학교의 형태로 전개되어 지며, 17) 교회 밖으로는 근대적 학교 설립을 통한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게 되는데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의 교과별 통계를 보면, 장로교가 605교 14,708명, 감리교가 200교 6,423명에 이르고 있으며 성공회나 천주교 및 안식교 등의 것을 합하면 학교 수는 950교에 달하고 있었다. 18)

3. 1운동 이후 한국교회는 급격히 성장했다. 당시의 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의존으로 탈피하여 자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피어 올랐으며 내적으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1925년경부터 시작된 세계적 공황으로 교회는 큰 시련이 직면하게 되었으며 경제난으로 많은 농촌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19) 참고로 당시의 교회 수와 교인 수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제하 한국 교회 수 및 교인 수 통계

연 도	교회수,증감	교인수,증감	연 도	교회수,증감	교인수,증감
1917	1,962	149,562	1,924	2,171	191,887
1918	1,788	160,919	1,925	2,232	193,823
1919	1,705	144,062	1,926	2,277	194,408
1920	1,738	153,915	1927	2,265	159,060
1921	1,879	179,158	1,928	2,191	177,416
1922	1,941	187,271	1,929	2,451	186,994
1923	2,097	193,850	1,930	2,345	194,678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회록(제6회-제19회)

한편 1920년대부터 기독교 사회 운동의 하나로 절제운동이 전개되는데,

17)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서울 : 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74), pp.36-39.

18) 손인수, 전계서, p.238.

19) 문동환, 전계서, p.43.

금주, 금연, 아편 금지를 중시하여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 공장 폐지운동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28년 장로교회는 절제회를 조직했으며, 1930년대에는 매년 음력 5월 4일-5일을 전국 금주 선언일로 정하고 연회는 매년 1920년 매년 12월 3째 주일을 금주 성일로 정하고 전 교회적 절제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²⁰⁾ 이 운동의 헌신적 지도자의 하나로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 운동에 투신한 '송상석'목사를 들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제의 신사참배는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왔고, 일제에 의한 정치목적의 친일단체들이 교회 내에 생겨났으며 많은 성도와 교역자가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교회의 변질과 타협을 가져오게 되었다.

Ⅲ. 韓國 基督教 教育의 變遷

1. 1910年 이전의 基督教 教育

시대적 특성은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되던 19세기 중엽의 시대적 배경은 대원군과 민비, 개혁파의 대립, 갈등으로 국내 정치는 혼란 상태였다. 나라 밖의 형편은 이웃 청국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을 겪으며 동진하는 서양의 물결 앞의 노대국의 빛을 잃어 가는 형편이며 일본은 1868년 천황을 정점으로 문호개방의 외교정책을 세우고 근대국가 건설을 하면서 명치유신을 이룩하며 한국을 넘보고 있었다.²¹⁾

20) 은길원, 성경 구약부의 사회 교육적 연구(서울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72), p.21.

21) 장종철, 기독교교육역사(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415.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집권자들은 갈팡질팡 하고, 국고는 탕진되고 뇌물로 관직이 매매되고, 농민은 착취되고 있었다. 한편 양반계급의 모진 착취와 압박에 대항하여 농민을 바탕으로 한 동학 난은 차츰 그 세력이 커지다. 외세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청, 일의 충돌을 가져 온다. 한편 국어 국문학에 대한 열이 대두되면서 순 한글로 된 신소설 이 인직의 “혈의 누”, “괴의 성”, “치악산”은 개화 사상을 불러 일으켰고, “천로역정”같은 외국 번역물이 간행되어 신 사조를 일으키고 있었다.²²⁾

교육상을 보면 우리의 교육은 국민의 다수보다도 소수 양반이나 사대부의 자제를 위한 교육제도였다. 중앙에서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서는 향교가 있으며 전국 각처에는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나 서당이 있어 한식 교육을 베풀고 있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전통적 교육 사상에서 배풀어졌다.²³⁾

기독교 교육의 태동은 한국 초기 개신교의 선교 수용 과정을 보면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1882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여름에 정부는 ‘민영익’을 조선정부의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미국을 방문케 하였다.²⁴⁾ 1884년 말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가 한국선교의 명을 받아 언더우드는 1885년 1월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은 2월에 각각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맥클레이’ 목사의 집에 머물면서 한국에 입국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3월 5일 ‘맥클레이’ 목사 집에서 제1회 선교사회를 개최하고 선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의논했는데, 당시 한국인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이수정, 박영효, 등을 만나 한국에 대한 사정을 물었는데, 이때 박영효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있

22) 진단학회 한국사, 최근세 편(서울 : 을유문화사, 1963). p.944.

23) 장종철, 기독교교육역사(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p.417.

24)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pp.81-82.

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²⁵⁾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는 1885년 3월 31일 일본 ‘나가사끼’항을 떠나 4월 2일 부산에 정박했다가 4월 5일(부활절 주일) 오후 인천항에 첫발을 밟았다. 기독교는 이렇게 처음 교육과 함께 들어왔다. 1885년 8월 3일 배제학당을 세움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이 되었다.²⁶⁾

근대 주일학교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주일학교의 시작은 1780년 영국의 ‘레이크스’에게서 발견되고, 주일학교 운동이 교회 밖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의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주일학교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886년 6월 제2회 미 감리교 한국 선교회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²⁷⁾ 역사적 자료의 확실성은 ‘아펜젤러’의 선교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남자의 주일학교는 1888년 3월 11일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펜젤러’의 일기에 밝혀져 있다.²⁸⁾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청일전쟁 후 사회가 불안하던 1895년부터 1907년의 대부흥과 합병이 있던 1910년 기간에 일어났는데, 성년 교육인 두 가지 형태 즉, 사경회와 장년 주일학교에서 그 부흥의 기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교회가 최초의 사경회가 있었던 것은 1890년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연구를 행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그 후 1907년에 있었던 대 부흥회는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³⁰⁾

초창기 개척 선교사들은 사랑방 교육을 통해서 교인을 훈련시켰다. 선

25) 장종철, 전계서, p.419.

26) 기독교교육학교와 사학이념을 중심으로한 논문은 송길섭, 「인간해방의 교육」, 기독교사상, 1985. pp. 19-28.

27) 장종철, 상계서, p.427.

28)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Jan. 1896. p. 5.

29)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8), pp.60-61.

30) 장종철, 상계서, p.429.

교사들의 선교 사업을 보면 남자들은 남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방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개화시키고 교육과 전도를 했고, 여자 선교사들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하면서 신앙훈련을 했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세계대회에 참가한 것을 보면 1907년 5월18일 '윤치호'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강연도 하고 실행부 위원이 되었다. 이 같이 민족 지도자들은 세계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세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했고, 1910년의 합병의 민족적 슬픔을 당하면서도 세계적인 협조 속에서 기독교의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갈 수가 있었다.³¹⁾

1910년 이전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1885년 이후 개신교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사업과 교육사업을 착수한 때이다. 감리교의 선교사들은 1886년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장로교의 선교사는 경신학교와 정신학교를 세웠다. 교육정도도 처음에는 초등교육의 단계였으나 곧 중등정도의 모습으로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량해 갔다. 학교는 개화, 반 봉건적 의식 및 자주독립을 태동시켰고, 신문화 수입의 기관으로 참여했다. 한편 1905년 이후 주일학교 위원회가 창설되었고, 세계 주일학교 대회의 참가를 중심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세계와의 접촉과 함께 기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³²⁾

2. 1910年대의 基督教 教育

개신교 기독교 교육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일제에 의한 민족교회의 탄압과 민족교육의 수난시기이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합병조약을 선포

31) 장종철, 전계서, p.430.

32) 장종철, 상계서, p.431.

하고, 한국 민족을 철저히 일본화 하므로써 영구히 우리 겨레를 말살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내세운 표어가 곧 한국 민족의 황신민화, 내선일체, 일시동인, 공존공영, 내지 연장주의와 같은 허울좋은 언구이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을 식민지라는 말로써 표현하지 않고, 신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³³⁾

기독교 교육의 갈등과 성장은 합병 이후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임한 '테라우찌'총독은 무단정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민지 교육행정을 시작하였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 '테라우찌'총독이 식민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아직 '테라우찌'와 사정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은 특히 그 힘을 덕성의 함양과 국어의 보급에 힘써 제국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구비하여야 한다."식민지 초기에 일제는 교육을 통하여 식민지 교육의 기초를 다져갔다.³⁴⁾

합병초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로, 우리 민족을 이른바 총량한 국민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한국인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다. 넷째로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느니 점진주의 교육을 하다느니 해서 한국인을 우민화시키려고 하였다."

1910년 합병 이후 사상 감시를 위한 일제의 교육방침은 1911년 종래의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감독을 강화하더니 드디어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 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민간의 세운 사립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태껏 어느 정도 치외법권에 속해 있던 선교사들이 경영해 온 기독교계 학교도 사립학교 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³⁵⁾

33)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 현대교육총서 출판부, 1964), p.55.

34) 오천석, 상계서, p.230.

35) 장종철, 전계서, p.435.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선교회의 공식태도는 1915년 선교연합회의 “개정교육령에 관한 결의문”³⁶⁾을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고 나왔다.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기독교주의의 사립학교에 있어 성경과 종교적 의식을 과목 중에 넣어 줄 것, 둘째로, 한국어 사용제한을 철폐하여 줄 것, 셋째로, 사립학교 경영에 있어 현재 이상의 자유를 허용하고, 불필요한 관헌의 간섭을 철폐하여 줄 것, 넷째로, 생도 또는 생도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줄 것, 다섯째로, 한국인에 대한 한국사, 세계사 교수의 제한을 철폐할 것, 여섯째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지나친 재산상의 요구를 하지 말 것. 이상의 항의문을 통하여 사립학교와 선교단체는 많은 구속과 탄압을 받았다.³⁷⁾ 1910년 일본의 통치가 시작된 뒤로부터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10년간 일제는 한국인에 대하여 황국신민화와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하며 일어를 강요하고, 일본의 문물을 주입시키고 일본인 교사를 고용하고, 교과서를 통제하고, 한국인 교사와 학생의 사상을 감시하는 등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기울였다.³⁸⁾

일제의 기독교 정책은 그러한 소극적인 회유정책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탄압을 썼던 것이다. 이 탄압정책은 일상적인 종교적인 종교의식에서도 트집을 잡았다. 일제의 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믿는 사람들은 군병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와 같은 찬송가도 민족주의와 투쟁을 조장시킨다고 하여 금지시키기도 하였다.³⁹⁾

1910년대의 기독교 교육은 한국 개신교의 이 같은 항일 구국 운동은 결국 일제 강점 하에서는 극심한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립학교에서는 다시 축소 일로를 걸어갔으나, 한국 개신교의 기독교 교육은 민족교

36) 선교연합회의 “개정 교육령에 관한 결의문”에 대하여는 Underwood. H. K., Modern Educaion in Korea(New York : international press, 1926), p.202.

37) 장종철, 전게서, p.436.

38) 장종철, 상게서, p.437.

39) 장종철, 상게서, p.438.

육을 통하여 3. 1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력으로 형성해 주었고, 일제 전 시기에 걸쳐서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항일 민족운동의 보루로서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였다.⁴⁰⁾

3. 1920年대의 基督教 教育

1920년대는 한국 기독교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였다. 3. 1운동에서 기독교는 독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타격을 받아 3. 1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은 좌절에 빠졌고, 항일 투쟁의 현장에서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20년대는 민중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시대였다. 일제는 이 3. 1운동을 기하여 식민지 통치의 전략을 바꿨다. 합병 이후 계속 실시해 오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통치체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화정치의 근본 목적은 3. 1운동 이후 일본이 새롭게 인식한 한민족의 민족운동에 대한 회유책이었고 총독부는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정책의 특징이 식민지 제민족의 우민화, 노예화, 일본인화, 즉 동화정책을 폈다.⁴¹⁾

1920년대부터 교회는 밀려오는 지적 분위기의 변화, 반미적 경향, 경제적 시련, 그리고 민족 말살을 획책하는 일제의 탄압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자기 반성의 시기으로써, 신학교육의 수준은 향상을 보지 못하고 새 학문이 일본을 통해 몰려들 때 기적인 빈곤을 쓰리게 체험했다.⁴²⁾ 1929년 9, 10월 광주 학생운동의 전야로 조선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도로 불안하여 노동쟁의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항일 동맹 휴학이 절정에 달했고, 일제는 당국의 탄압 또한 극에 달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

40) 장종철, 전개서, p.440.

41) 장종철, 상계서, p.440-441.

42) 장종철, 상계서, p.442.

자 1929년의 세계적 대 공황의 파도는 식민지 조선에도 밀려들어 민중의 생활은 거의 기아선상을 헤매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은 살기 위해 필사적 투쟁을 벌려야 했다. 1930년 조선 근대사는 처음 경험하는 민중의 유혈적 노동쟁의, 소작쟁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⁴³⁾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주일학교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와 함께 교육을 통해서 백성과 한국을 개조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주일학교 확장운동은 취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보급시키게 되었다. 이 운동은 하기 주일학교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어 나갔고, 농촌의 확장 주일학교 제도는 1924년에 도입되었는데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의 훈련된 교사들을 선교사들의 차에 태워서 농촌에 풀어 놓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아들이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는 걸어서 가기도 했다.⁴⁴⁾

주일학교의 확장은 활발하여서 1930년에는 하기학교가 감리교, 장로교를 합쳐서 36,239명이었는데, 1934년에는 하기학교가 128,926명으로 증가되었다.⁴⁵⁾ 1933년에 열린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 제12회 회의록에 의하면 조선의 주일학교는 그 교사와 학생 총수가 40만2천3백11명으로 세계에서 제8위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숫자는 중국의 27만 1천 5백 52명, 일본의 1만 9천 3백 52명을 훨씬 능가했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 주일학교 지도자들의 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⁴⁶⁾ 첫째는, 3. 1운동에서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교육운동으로 민족을 일깨우자는 소망이요, 둘째는, 3. 1운동 이후 교회의 성장도를 보았을 때 교회의 신앙 회복으로 교세가 상승세를 보이자 교육을 통해서 한국을 기독교화 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기는 힘들지 않으리라

43) 이영현, 한국기독교사,(서울 : 기독교교육사, 1992), p.174.

44) 장종철, 전계서, p.445.

45) 문동환, 한국 기독교 교육사(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4), p.47.

46) 김윤경, 조선문학 반언학사(경성 : 학출판협회, 1938), p.66.

고 생각했던 것이요, 셋째는, 한국을 내왕하면서 한국 주일학교 운동에 자극을 주었던 세계 주일학교 운동가들을 통해서 세계를 기독교화 하자는 것이었다.⁴⁷⁾

주일학교 교육내용을 보면 1911년 미국에서 출판된 통일공과를 일년 후에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1933년부터는 1년 전에 본문과 요절을 갖다가 우리의 손으로 작성하고 출판했다. 주일학교 공과로서는 통일공과 뿐만 아니라 “부별 계단공과”도 1927년에 출판되었다.⁴⁸⁾

1920년대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무단정치로 일본화 하려던 계획이 실패한 1919년 3.1운동 이후 그들이 태도를 바꾸고 소위 문화정책을 펴기 시작하려던 때였다. 교육은 일제 식민지하의 개정된 교육제도에 따라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구실로 하여 격화된 한국인을 무마해 보려는 회유책을 썼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교육은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며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탄압도 약간 완화되어 “보통학교”, 또는 “고등 보통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성경을 교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화의 교육에 적개심을 품은 한국 학생들이 1929년 소위 광주 학생사건 등을 일으키는 등 항일 투쟁운동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때 기독교는 여전히 일제히 탄압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다.⁴⁹⁾

4. 1945年 이전까지의 基督教 教育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시기는

47) 문동환, 전게서, p.46.

48) 엄요섭, 한국기독교 교육사(서울 :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59), pp.8-11.

49) 장종철, 전게서, p.448-449.

전후하여 일제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화정책, 주 황국 신민회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특히 일제는 침략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인적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 민족을 군대로, 군수산업으로 동원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일제는 한국인의 “황국 신민화”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1936년 8월 ‘남차량’ 총독은 군국주의의 지상과제를 가지고 황국 신민화를 철저화하면서 내선일체를 실천하였다.⁵⁰⁾

일제는 1932년경부터 한국인에게 그들의 신도주의에 입각한 신사참배를 강요해 왔다.⁵¹⁾ 한국 교회의 신사 불참배 운동은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그에 반대운동을 일으킨 때부터였다.⁵²⁾ 1938년 2월 9일은 평양 신학교 학생의 반대 시위가 있어 투옥되었고, 동년 9월 28일은 남 장로교 선교사들이 광주에 모여 신사 참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또한 ‘합법적 신사불 참배운동’은 1937년 평양의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의여중의 신사불참배 문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폐교위기 직전의 신문 기사를 읽고 박실후 장로는 총독부 방문 진정서 제출과 불참운동을 전개하다가 6년간 옥고 끝에 순교를 했다.⁵³⁾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손양원 목사, 또한 오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승훈과 조만식의 거부운동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1940년경부터 검거, 투옥 시켰는데, 이 기간에 투옥된 수가 2,000명을 넘었고, 순교자의 수는 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⁵⁴⁾

당시 기독교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한국인의 민족운동과 연결되고 있

50) 장종철, 전게서, p.449.

51) 민경배, 한국 기독교사(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p.426.

52)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서울 :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pp.172-199.

53) 김양선, 상게서, p.191.

54) 장종철, 상게서, p.452.

었다. 이 기간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박해하였고, 기독교의 주도권은 일제의 뒷받침을 받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의 강압으로 교회는 박해 아래 있고 민족적 양심 세력이 제거된 후 신앙은 어둠 속에 있게 되고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들은 약체가 될 수밖에 없어 암담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이 기간 일제의 박해에 인하여 탄압 받고 쓰러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요약하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였고, 교리와 전래된 신학의 노예가 되었고, 교권의 노예가 되었다. 이 기간 주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일컬어 주재용은 ‘한국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⁵⁵⁾라고 불렀다.

1945년 이전까지 시기의 일본은 군국주의적 야심을 아시아 대륙에 퍼갔고, 한국을 병침 기지화했고, 교육은 대륙 침략 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쟁 물자의 공급원으로 동원되었고, 학교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에게 차별정책이 시행되었고, 한인 교사들은 추방되고, 일인 교사들이 대량 진출되었다. 이 기간 신사참배 강요 등 민족교육의 말살 정책으로 기독교계 사학은 일제에 굴복당했고, 한국교회는 신앙인의 내면화에 치중하여 교회교육을 강화하는 듯 했으나 교과외의 비호를 받은 주일학교 교육은 자주성 정신이 결여되고, 미국에 의존된 교재만을 출판 사용하게 되는 등 기독교 교육은 암흑기를 견지 않을 수 없었다.⁵⁶⁾

5. 先行研究의 考察

본 연구자가 조사한 선행연구는 약7편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여 본다.

55) 주재용, 역사와 신학적 증언(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p.278.

56) 장종철, 전계서, p.454.

송길섭. “민족교육과 민중교육” 감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 한국 기독교의 교육사업은 초창기부터 민족교육으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가를 대신하여 민족 교육을 시행해 나갔다는 관점에서 일제하의 주권 상실이란 민족적 비극 속에서는 일제의 한국 민족의식 말살정책과 억압에 대항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식 고취와 구국사상 고취 및 민족 독립 운동에의 동참으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민족의 양심으로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다.

서광선. “한국 문화와 기독교 교육신학 서설” 장신대 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1. 그의 논문에서 해방신학을 근거로 한 교육신학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는 구약성서의 신학은 해방의 신학이다. 구약성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는 이스라엘의 해방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을 하시는 근거 역시 해방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해방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만열. “개신교의 전래와 일제하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1982. 그의 논문에서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접근, 이를 한국 기독교사와 민족사와의 관련하에서 다루면서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을 다루면서, 일제하의 기독교 교육운동은 기독교 민족운동의 일환이었고 이러한 기독교 교육운동은 사회적인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치준. “일제하 한국 개신교 운동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그는 일제하 한국 개신교 운동을 어지러운 사회 상황속에서 어떤 탈출구를 찾으려는 가치지향적 운동으로 보고 한 종교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의 여건, 지도자의 역할, 일반 신도의 요구, 당국자의 정책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의 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승희. “일제하 한국 기독교의 신사참배 항거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그는 한국 기독교의 신사참배에 대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과 율법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극단적인 일제의 정치적 탄압을 고려해 볼 때 신사참배 항거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 편협한 고백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정치적 항거의 의미를 지니며, 신사참배로 인해 분열된 한국 기독교의 현실, 그리고 신앙과 윤리의 부당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기독교 정치원리의 정립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재. “민족 교육과 민중운동” 한신대 신학대학 석사학위. 1988. 그는 일제하의 유년 주일학교와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교육을 다룸으로 일제하의 주일학교 교육은 우리 민족 속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정신을 굳게 심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민족을 일깨우고 자주 독립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민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며, 야학 역시 민족교육으로서 다루어졌다고 본다.

김정임. “일본 제국주의하에서의 한국 교회의 민족운동”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그는 1920년대 기독교의 문제는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들이 추진되면서도 불리한 세계와 민족 사회구조 안에서 그 언인들이 간과 된 채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 치유에 머물러 하나님의 의와 세계의 불의를 망각한 채 단지 교회 자체의 업적이나 교세 확장의 자기 민족에 빠져 사회와 세계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역사의 미래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신사참배 강요는 단순히 일제가 한국 기독교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천황에 대한 종교적 충성을 강조하였으나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일으키며 민족주의적 항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교육운동이 해방 신학적 운동이 아니라 민족 교육운동임

을 암시하고 있다.

IV. 日帝下 韓國 基督教 教育의 形態와 教育內容

1. 基督教 教育의 民族教育運動

일제는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민족주의 사상의 온상이었던 사학을 통제하고 단속하게 되는데, 그들은 제10조와 제6조에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검정받은 것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것 같다고 하여 탄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내에서 부른 ‘십자가 군병들아’와 같은 찬송은 싸움을 선동하는 것 같다고 하여 압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의 예배 시간에 목사들이 설교 할 때에 “죄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도 총독부 정치를 항거하라는 말로 트집을 잡아 탄압하곤 하였다.⁵⁷⁾

감리교 계통의 학교는 현실론에 기울어 방과후 종교 과목 교수와 종교 의식을 허용 받고 사립 학교 규칙에 따라 학교를 유지하였다. 참고로 합방 이후 사립학교 통계를 통하여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57) 객안련, 한국교회사(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0), p.142.

58) H. H. Li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New York : International Press, 1926), p.173.

〈표 5〉 사립학교 통계

연도	종별	일반	종교	합계
1910		1,320	778	2,080
1911		1,044	677	1,721
1912		817	545	1,362
1913		796	487	1,283
1914		769	473	1,242
1915		704	450	1,154
1916		624	421	1,045
1917		518	350	868
1918		461	317	778
1919		444	298	742
1920		410	279	689
1921		356	279	635
1922		352	262	614
1923		376	273	649

H. H. Li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New York : International Press, 1926), p.173.

1912년의 대한 예수교 총회록은 학무 위원보고에서 수와 재정에 있어서 지난해 보다 적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며,⁵⁹⁾ 그 이후 1915년의 제4회 총회시에는 재정 곤란으로 인하여 유지가 국난 함을 호소하고 있다.⁶⁰⁾ 1910년대의 지지부진한 교육상태는 별로 새로운 돌출구를 찾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던 중, 1919년 삼일운동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 시작한다. 법적으로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으며 대규모의 학교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서 1920년대에도 계속 침체상태에 머무르는 반면, 새로운 교육운동이 교회내에, 나타나게 된다. 1919년의 장로회 총회 각 노회보고 중 한남노회는 교인들이 서당을 힘써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⁶¹⁾ 평북노회와 경남노회가 각각 교인들과 교회가 사숙을

59)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1권, p.34.

60)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4권, p.40.

설립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²⁾

새로이 나타나게 된 교육기관을 보면 종래의 서당 혹은 개량 사숙과 소수의 교사가 초등과정을 가르치던 간이 학교 형태의 학술 강습소, 그리고 주로 밤에 학생들에게 초등과정의 교육을 실시한 야학이 있으며, 유아들에게 교육하던 유치원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세워지고 있다.

1920년대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교육 운동으로 주간 성경학교 운동과 1929년 '권세열'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성경 구락부 운동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운동들은 당시에 높아진 교육열을 수용하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장을 형성해 간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종전에 이러한 교회의 교육 활동은 '별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털어 불려져 왔으나 1920년대에 이러한 교육 운동이 중심을 이루게 되자 장로 교회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매년 총회록에 그 통계를 실고 있는 바 이 시대 교육 운동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별학당 통계

연 도	학 교	교 사	학 생
1914	40		920
1915	42		792
1916	37		824
1917	23	47	848
1918	15	47	758
1919	22	36	356
1920	111	90	1,476
1921	310	200	4,722
1922	193	341	6,823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제3회-제11회)

61)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8권, p.66.

62) 상계서, p.101.

〈표 7〉 야 학

연도 구분	학 교		교 사		학 생	
	남	여	남	여	남	여
1923	296	228				
1924	224	427				
1925	561	956				
1926			464	477	2,704	4,899
1927						
1928	127	178	581	226	2,769	6,552
1929	197	150	656	270	3,947	8,284
1930	188	207	731	423	4,200	8,136
1931	258	284	943	314	6,464	8,666
1932	209	158	830	281	5,294	8,867
1933	210	151	741	298	5,655	9,022
1934	193	152	756	332	4,614	9,606
1935	155	118	662	279	4,895	8,725
1936		129	608	280	3,916	9,302
1937	141	152	602	329	4,332	10,126
1938	88	101	351	188	2,304	7,695
1939	49	128	327	174	2,303	6,285

〈표 8〉 강습소 통계

연 도	학 교	교 사	학 생
1923	46		
1924	115		
1925	301		
1926	135		2,554
1927			
1928	57	723	1,711
1929	52	125	2,121
1930	104	235	4,359
1931	150	238	5,499
1932	131	196	4,735
1933	84	142	4,236
1934	85	132	4,503
1935	83	204	5,262
1936	73	152	5,824
1937	108	173	7,231
1938	77	164	5,931
1939	61	117	4,690

<표 9> 유치원 통계

연 도	학 교	교 사	학 생
1923	228		
1924	281		
1925	664		
1926	98		4,946
1927	106	184	5,094
1928	131	203	5,357
1929	125	204	5,258
1930	138	216	6,210
1931	147	283	7,119
1932	142	266	6,294
1933	129	286	6,302
1934	143	277	7,157
1935	143	249	7,711
1936	147	249	8,698
1937	148	297	9,017
1938	140	278	9,402
1939	144	291	9,570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제12-제28회)

<표10> 하기 아동 성경학교 통계

연 도	학 교	교 사	학 생
1926	915		
1926		1,287	14,020
1927		1,501	19,400
1928	287	1,820	19,428
1929	368	2,280	25,302
1930	392	2,145	26,096
1931	545	2,010	34,996
1932	681	3,579	53,864
1933	608	3,596	44,583
1934	709	3,962	53,350
1935	668	4,089	52,806
1936	720	3,864	55,075
1937	740	4,296	86,953
1938	1,606	4,545	58,799
1939	586	3,516	46,919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14회-제28회)

2. 學術 講習會

1) 학술 강습회의 형태와 종류

학술 강습회는 비정규의 민중 교육기관으로 일반 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 학술 강습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낮에 실시되는 경우를 강습회라고 부르고 밤에 실시되는 강습회를 야학이라고 불렀다. 기독교 내에서 야학 형태의 강습회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913년 종로 조선 중앙 기독교 청년회가 경영한 노동 야학으로서 소년 노동자를 모아서 보통 교육을 실시하였다.⁶³⁾ 학술 강습회는 처음부터 야학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학의 학술 강습회에 야학을 병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평남 강서군 장안면 안석리 교회당에서 개설한 강습소는 40명의 아동을 교수하던 중 청년들이 배우기를 갈망하므로 야학을 병설하였다는 내용이 1924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표 7>과 <표 8>이 보여주는 대로 학술 강습회의 대부분은 야학이었고 낮에 직장이나 생업으로 공부할 수 없는 무산자와 그 아동을 주로 가르쳤다. 야학은 그 대상에 따라서 노동 야학, 농민 야학, 여자 야학으로 나뉘어서 불려졌다. 노동 야학은 명칭 그대로 노동자를 위한 야학으로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소개된 교회야학 중 노동야학으로 불린 경우를 보면 1922년 4월 23일 거창읍 내 교회에서 세운 야학을 노동 야학으로 부르고 있으며, 1923년 5월 10일자에는 담양 창평 교회에서 노동 야학을 설립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야학이란 명칭은 반드시 노동자가 그 수강생이 되는 경우에만 붙여진 것이 아니며 국민자의 자녀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명

63) 자료 : 동아일보, 1923년 3월 1일.

칭이 붙여졌다.⁶⁴⁾ 노동 야학은 각지에 설립되었는데 1907년 설립된 마산의 노동 야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 야학으로 생각되고 있다.⁶⁵⁾ 여자 야학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학으로서 당시에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학술 강습회의 설립자

기독교에 의하여 세워진 학술 강습회의 설립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그 첫째는 각 개체 교회들이고 둘째는 교회의 유지 및 개인이고 셋째는 교회 내의 각종 봉사 단체들이다. 1920년에서 1932년까지 동아일보에 나타난 기독교 야학 162개의 설립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⁶⁶⁾

〈표11〉 학술 강습회의 설립자 구성표

설립자	수
교회	59
개인 및 유지	30
기독교 청년회	40
여자 기독교 청년회	12
엠폴 남, 여 청년회	10
기정 면려회	5
부인 전도회	3
교회 청년회	2

이러한 설립자 구성으로 노아교회 이외에 기독교 청년 단체들이 68개로서 설립자의 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한 기독교 청년회(Y.M.C.A.)

Y.M.C.A.는 영국에서 조직된 청년운동으로서 한국 Y.M.C.A.는 1900년

64) 자료 : 동아일보, 1924년 11월 1일.

65) 자료 : 동아일보, 1924년 11월 1일.

66) 자료 : 동아일보, 1920년 9월 15일.

경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여병현'씨가 주동이 되어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 하자 준비를 마치고 1903년 10월 28일 서울 정동 유니온 클럽에서 37인 발기인이 모여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함으로 창립되었다.⁶⁷⁾ 이들이 내세운 모토는 종교와 교육과 문화활동으로서 서울 Y.M.C.A.는 1910년대에 노동야학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 Y.M.C.A.도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광주에서는 무산아동을 위한 야학과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함흥에서는 도서관을 개설하고 주, 야학을 개설하였으며, 선전에서 무산아동을 위한 주 야학을 경영하였다.⁶⁸⁾

(2) 대한 여자 기독교 청년회(Y.M.C.A.)

Y.M.C.A.는 1657년 영국에서 시작된 범세계적 여자 청년회로서 한국에 있어서는 3.1운동 직후에 전국 주요 도시와 여자 전문학교 및 중학교 안에 설립하였다. 1922년 6월 전국 여자 '하령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총무 '김필레'가 전국을 순회 각 지방 여자 청년회 Y.M.C.A. 연합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 익년 8월 18일 34지방 Y.M.C.A. 대표들이 모여 동 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연합회를 조직한 뒤에 곧 세계 Y.M.C.A. 연맹에 가입하였다.⁶⁹⁾ 교회의 부인 전도회가 교회를 중심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대응하여 Y.M.C.A.는 사회 안에서 기독교적 이념에 기여하여 여성들을 교화 계몽하는 일에 힘썼다. 초창기의 회원들은 전도, 농촌 계몽, 금주 금연, 공장제 폐지, 생활 개선 운동, 여성의 지휘 향상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벌였으며,⁷⁰⁾ 1925년 Y.M.C.A.가 농촌 사업을 시작할때는 Y.M.C.A.의 고등 상업으로 했으며 각 지방에서 여성의 문맹퇴치와 부녀계몽을 위해 야학을 설

67)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서울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p.634.

68) 이만열, 전계서, p. 95.

69) 김양선, 상계서, p.636.

70) 김현자, 기독교 여성 운동사(서울 : 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74), p.140.

립 운동하였다. 특히 농촌 계몽 사업에 힘써 농민교육을 실시하였다.⁷¹⁾

(3) 엡윗 청년회

엡윗 청년회는 감리교회의 청년 운동 단체로서 188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고, 1890년 미국 감리교회 청년 신앙 운동으로 통일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1894년 5월 5일 성동 감리교회에서 창립되어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나 그후 일제의 강제 해산명령을 받아 없어졌다가 1920년에 북감리교 엡윗 청년 연합회가, 1925년에 남감리교 엡윗 청년 연합회가 각각 조직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1929년에는 기관지로 '종교교육 회보'를 발간하였고 중요 사업으로 친교 및 신앙운동이 있었으나 한국의 청년들에게 주관신사는 교회봉사 사업 및 사회 봉사 사업으로 각 교회 청년회를 통한 야학 사업에 힘쓰게 되었다.⁷²⁾

(4) 면려 청년회(C. E.)

1881년 미국에서 회중교회 목사 'F. E. Clark'에 의해 창설된 초교파적 청년회였으며 한국에서는 1901년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면려회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21년 장로회 제10회 총회때부터 "면려청년회"로 통일하자는 건의안이 상정되었다.⁷³⁾ 그 이후 1924년 제1회 연합대회 때에 면려 청년회 전국 연합회가 결성되었다.⁷⁴⁾ 처음에는 헌신예배, 성경연구, 교회봉사, 전도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뒤에는 금주 금연운동, 문맹 퇴치운동, 농촌 사업등 사회 사업을 크게 벌였다.

장로교의 청년운동인 이 운동은 각 교회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각 교회

71) 대한 Y.M.C.A연합회, 한국Y.M.C.A반백년(서울 : 대한 Y.M.C.A연합회, 1976), p.45,p.57.

72) 김양선, 전계서, pp.636-637.

73)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10권, p.56.

74) 이만열, 전계서, p.273.

의 면려 청년회를 통하여 야학 설립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사회교육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관 이외에 중요한 설립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각 개인 신자들로서 이들은 교회당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경비를 자담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표12〉 야학 일람표

학 교 명	소재지	설립일	학생	교사	교과목 및 시간
인천청년야학회	인천	1920.6			한문,어학,산술
홍원여자야학	홍원	1920.6	40		성경조선문,한문산술
함흥여자학교	함흥	1919.	200	4	한문,조선어,산술
기독교여자학교	영주	1920	70	4	조선어,한문
신창여자야학	북청	1920	50		조선어,한문,산술
용상동야학회	포천	1920.9	50	4	보통교육,한문,조선어,산술(노동자)
함흥기청야학	함흥	1920.9	90	2	갑,영어,을,보통과
안성여자야학	안성	1921.3	90	2	
영동노동야학	영동	1921.4	50		조선어,산수,일어,한문
군산교회여자야학	군산	1920.12	50	2	매일밤 2시간반
비현여자야학	의주	1921	630	6	성서,조한문,산술,위생학
구암리아학	군산	1921.5	50	5	조선어,한문,산술
여주여자야학	여주	1921.6		2	성경,조선어,한문,산술,매일1시간
용산교회야학	황등	1921.7.	30	2	성경,조선어,한문,산술, 매일1시간(유년30)
고흥노동야학	고흥	1921.4	70	2	조선어한문,산술
전주여자야학	전주	1921.4	60	10	조선,한문,산술,가정,위생,성경,1주
가평남여야학	가평	1921.9.	60	10	4일
신창리교회야학	평양	1921.9	170	10	일,산술,한문,성경3년 과정(15-36세)
광주여자야학	광주	1921.10	100	수명	조선어,산술
안주교회야학	안주	1921.10	30	14	남:성경,영어,법률,일,간식,산술,시문 여:성경,산술,조선어,한문,가정학,일 3간
조치원부터야학	조치원	1921.11	40	4	
신의주기청야학	신의주	1922.1	40	4	중국어,부기
사창동야학	평양	1921.추	100		일어,산술,한문,성경
거창노동야학	거창	1922.4	40	2	
원봉동농민야학	선천	1922.9	50	3	
북진교회여자야학	운산	1923.2	22	3	조선어,한문,산술,성경,창가
노동리아학	경주	1922.추	50	3	
신천부인야학	신천	1923	56	2	성경,일어,한문,산술
동창포 노동 야학	안학	1923.4	19	2	조선어,한문,산술

학 교 명	소재지	설립일	학생	교사	교과 및 시간
성진부인야학	성진	1924.5	50		조선어, 일어, 산술, 창가, 주산
관리아학강습회	의주	1924.9	5학년	6	공립보통학교 6학년 정도
신창야학	순천	1924.11	45	3	
안동노동야학	안동	1924.11	20	1	
이리야학	이리	1925.3	50		국어, 한문, 산술, 일어, 3개월, 월10전
단계노동야학	산청	1924.8	60		조선어, 산술, 일어
선천노동야학	선천	1925.4	16세 이상		국문, 숫자, 일1시간씩1개월(노동자)
화도여자야학	인천	1925.7	3반50	5	
안악야학원	안악	1925.9	40		조선어, 일어, 한문, 산술(13-14세)
장호원노동야학	이천	1925.11	40		조선어, 산술, 일어, 한문
오산노동야학	고창	1925.10		5	조선어, 산술, 일어
한천야학	평원	1925.12		2	일어, 산술, 조선어, 한문
선천기청야학	선천	1926.1	100		국문숫자
신의주농업야학	신의주	1926.1	200	10	국문, 한문, 위생, 간역, 법률, 농사개량
장흥야학	장흥	1926.10	45	2	조선어, 산술, 창가
용두리야학	고양	1926.5	40	1	상업, 부기, 영어
수입리노동야학	포천	1927.10	50		5,6과목
죽교리야학	목표	1928.4	2반90	4	조선어, 산술
예천부인야학	예천	1928.7	120		국문, 종교
철명야학	종강진	1928.12			성경, 한글
영변야학	영변	1930.2	2반		영어, 역사, 상식.
신명야학	진천	1930.7	80	7	보통: 조선어, 산술, 기타. 특별: 영어, 수학.
운향부인야학	용천	1930.11		6	국문, 가정, 위생, 산술, 요리, 육아법
전천농업야학	전천	1930.11			일어, 국어, 산술, 상식
패천리야학	통천	1930.11	30	2	국문, 산술, 일어
동수리노동야학	야구	1930.12			조선어, 일어, 한문, 노동이과산술업
고인리야학	강계	1930.10	30	2	

3) 학술 강습회의 경영 실태

실제적으로 학술 강습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기 전에 필자가 조사한 대표적 야학들의 설립일과 장소, 학생수, 교사수, 교수과목을 위의 표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75) 자료 : 동아일보 1920년 8월 31일.

(1) 교사 및 학생

<표12> 에 나타난 야학 교사 수가 알려진 38학교를 대상으로 평균 교사 수를 알아보면 교사가 2명 인 곳이 가장 많아서 13개 학교이며, 4명인 학교가 5곳, 1명인 학교가 4곳, 3명인 학교가 4곳, 5명인 학교가 3곳, 6명인 학교가 4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여러 학급을 가진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10명, 14명의 교사를 갖기로 하였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야학의 학교 당 평균 교사 수를 조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⁷⁶⁾

<표13> 야학 학교 당 평균, 교사 수

연도	평균 교사 수
1928	2.6
1929	2.7
1930	2.9
1931	2.3
1932	3
1933	2.9
1934	3.2
1935	3.5
1936	3.1
1937	3.2
1938	2.8
1939	2.8

위의 표에 의하면 장로교 경영의 야학의 경우 교사 평균수가 가장 작았던 때는 1931년의 2.3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때는 1935년의 3.5명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당 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낮에 교육을 실시한 강습소의 평균 교사수를 조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⁷⁷⁾

76)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17회-제28회 총회록

〈표14〉 강습소 평균 교사 수

연 도	평균 교사수
1928	1.3
1929	2.4
1930	2.1
1931	1.6
1932	1.5
1933	1.7
1934	1.5
1935	2.5
1936	2.1
1937	1.6
1938	2.1
1939	1.9

위의 표에 따르면 강습소의 경우 교사 수는 야학에 비하여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1928년의 1.3명에서 1935년에 2.5명 까지의 사이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학교당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학교의 교사는 교회의 유지들이나 청년들로서 구성되었으며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교사가 된 경우도 있으며 기존 학교나 유치원의 교사가 밤에는 야간학교의 교사가 된 경우도 있었다.⁷⁸⁾ 당시의 학술 강습소가 정규학교가 아니었으며 가르치는 과목도 조선어, 일어, 한문, 산술 등 간단한 기초 과목이었으므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없어도 열성만 있으면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무보수로 봉사하였으며 심지어 개인 재산을 털어 학생에게 지. 필. 목을 공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봉사적 정신이 투철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사실 학술 강습회의 학생성분에 대하여는 전기한 형태 및 종류에 대한

77) 전계서.

78) 자료 : 동아일보 1924년 11월 20일.

연구로 장로회 총회록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당 학생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⁹⁾

<표15> 학술 강습회 평균 학생 수

연도	야간학생평균	강습소학생평균
1928	31	30
1929	35	41
1930	31	42
1931	28	47
1932	38	45
1933	41	50
1934	41	53
1935	50	64
1936	50	80
1937	49	67
1938	52	77
1939	49	77

<표15> 에 의하면 야학의 학생 수는 28명-52명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고 앞에서 조사한 30명-50명선이 보편적인 학생 수로 나타난다. 한편 강습소의 학생 수는 30명-80명선으로 야학보다 그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정 및 경영방법

학술 강습회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한 데,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각 학교 당 소용되는 1년간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표로 살펴보기로 하자.

79)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17회-제28회.

〈표16〉 학술 강습회 연간 예산액

연도 구분	야학			강습회		
	학교수	경비	평균	학교수	경비	평균
1928	305	6,761	22	57	?	
1929	347	6,156	18	52	?	
1930	395	10,648	27	104	15,030	145
1031	542	10,493	19	150	18,027	120
1932	367	8,677	24	131	15,046	115
1933	362	9,188	25	84	18,294	218
1934	345	11,422	33	85	16,286	192
1935	273	11,776	43	83	17,728	213
1936	284	16,107	57	73	25,503	343
1937	293	17,597	60	108	23,421	227
1938	289	17,874	94	77	22,373	304

〈표17〉 1930년 야학 재정현황

명 칭	학 생 수	세출, 세입액	유지 방법
삼진야학	23	15.00	교회경영
의성야학		250.00	
영생여야학	60	84.00	수업료
주을야학		80.00	교회
사동야학	68	200.00	
광선야학		65.00	홍성음씨 기부
삼덕여야학	120	60.00	
회령여야학		131.16	여자기청유지가동정
영신여야학	120	70.00	

이러한 각 학교의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재정조달이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당시는 민족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학교들이 재정난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고 점차 문을 닫게 되는 상황임에도 야학으로 비롯한 사실 학술강습회는 증가추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러한 강습회를 유지해 가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기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앞의 <표 17>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비용을 전달하여 교회재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교회 내의 유지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경우, 야학을 설립할 때에 기본금을 모으고 그 기본금을 활용하여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아서 유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⁸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설립자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이에 찬조함으로 경영을 도왔다. 이렇게 기막힌 경제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스스로 학교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합심하여 이 일에 힘쓰고 있다.

(3) 학제 및 교과목

사실 학술 강습회는 단기로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졸업생을 내면서 일정한 학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수도 있었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 운영됨으로 인해 각양 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학제는 없었으며 사례들을 통하여 이를 대강 살펴 볼 수밖에 없다.⁸¹⁾

기독교 계통의 야학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 과목은 주로 조선어, 산술, 한문, 일어, 성경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생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쳤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강습회는 보통 과정의 지식 전달 중심으로 교육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성경과 찬송가 과목 등은 야학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0) 자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7회, p.43.

81) 자료 : 동아일보 1930년 2월 2일.

3. 夏期 兒童 聖經學校

1) 하기 아동 성경 학교의 발전 과정

하기 아동 성경 학교는 1887년 “휴가를 이용한 학교”라는 명칭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처음으로 개학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는 노래, 성경, 성경암송, 동화, 운동 교련, 애국적 행사 등이었다. 1916년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시작되고, 1917년에는 국제 하기아동 성경학교의 조직이 성립되었다.⁸²⁾

한국에는 서울 정동 교회에서 선생 5명, 학생100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해 여름에 서울 Y.M.C.A.에서도 아동 성경 학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일을 시작했다. 하기 아동 성경학교는 주로 아동들 가운데 학령이 되어 학교에 가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과 한글을 주로 가르쳤는데, 김양선은 하기 아동 성경학교 학생 중 30%가 불신자이며 그 중 50%가 신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⁸³⁾

동아일보 1927년 6월 27일 사설에는 ‘하기 아동학교’라는 제목으로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역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 후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⁸⁴⁾

1933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합쳐서 학교수 1,239교, 교사수 7,951명, 학생수 116,518명이라는 대규모의 교육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제4회 전선 주일학교 대회 기록에 의하면 1934년에는 128,926명의 학생이 하기 학교를 거쳐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⁵⁾ 당시의 주요한 아동 성경학교 일람

82) 한석원, 하기아동 성경학교의 지침(서울 : 동공, 1927.7), p.17.

83) 김양선, 전계서, pp.641-642.

84) 자료 : 동아일보 1927년 6월 18일.

85) 문동환, 전계서, p.47.

은 다음과 같다.⁸⁶⁾

〈표18〉 하기 아동 성경 학교 일람표

설립자	기간	학생	교사	과목 및 기타 과목
내쉬.리 대위김기연	1923.7.26- 1개월	400인의아동	전문 중학생38명	언문한자 서울시내 8곳의 학교에서
연백의 유학생	1923.8.1	70명		조선어,일어, 남천현교회에서
중앙기독교청년 회	1923.7.29-8.25	1,000	70명	미국 아동성경학교 만국협의회서 기부금
강경만동학교	1924.7.21-8.25	초등,고등각 각남100여50	5명	위생,음악,성경,일, 공,유희,체조,위인
길직리 교회	1924.8.1-20	100	4명	
사리원 동서부 교회	1925.7.22- 2주간			성경,산술,조선어, 국민자 지,필,책 공급
양산기독교교회	1925.7.22- 3주일	4세-16세		음악,유희 기타학과
황주읍교회	1925.7.27	7-15세		성경,음악,수예,동화 유희
강경황상교회	1925.7.27-8.20	8-17세남	유학생들	성경,지리,위인전,음 악,위생,유희,체조
금산의귀향유 학생	1925.7.28- 1개월		남3. 여3	동화,장가와 유희,위생,수신
군산교회기독교 소년회	1925.8.3.	8-16세		성경,음악,유희,기타 소년가극회
영변감리교회	1925.8.1- 1개월	6-15세	외지유학생 15인	성경,조선어,일어, 산술,위생,동화
운산감리교회	1925.8-1-20	8-15세 8반 11명	남6,여8	성경,음악,유희,체조 언문,산술,동화,수예
경성야소교회	1925.7.27-3주	6-15세		성경,음악,독서,위생

86) 자료 : 동아일보 1923년 8월 31일.

설립자	기간	학생	교사	과목 및 기타사항
고흥길두리교회		60	유지청년	심성수양,보통상식 공급,학교교사혜서
신시장로교회	1925.7.27- 8.29		유학생3명	성경,산술,위인전, 언문,창가,유희
황주흑교장로교	1925.7.27- 1개월	120명	남2, 여2	수신,성경,국문, 유희,동화
정주오상교회	1925.8.1- 20일	7-15세	유학생	성경,산술,선문,상식,위 생,수공,음악,유희
수원종로교회	1925.7.28- 1개월		6인	성경,유희,음악, 삼일교회에서
회령교회	1925.7.10	140	1-6반6명	유학생이 교사
순천신창시감리 교	1925.7.28- 8.25	7-15세		성경,조선어,일어,산술, 역사,장가,그림,동화
풍기성내교회	1925.7.30- 1개월	유지,초등, 소년,중등, 수공과	10명	조선문,음악,성경, 동화,수공
인천화도교회	1925.8.3	150명	남7,여8명	동화,유희,조선어, 음악,역사
선천장공동교회	1925.8	유,초,소,중 등,수공	유학생8명	성경,조선어,장가, 유희,동화
궁평리감리교	1925.8	주,야학 100	5명	성경,조선어,산술,유희, 장가,체조
영무교회	1925.8.10		유학생 3인	성경,동화,위생,유희,창 가,체조
함평창교회	1925.8.1- 1개월	유,초,소, 130명		성경,조선어,음악, 수공,동화,수학,역사
경이포교회	1925.8.3- 3주	100명	8명	성경,조선어,동화
서울중앙교회	1925.7.22- 8.6	140명	유학생	성경,영자,수신,산술,상 식,수공,음악,유희,창가 ,조선어,일어,

그러나 일제는 하기 아동 성경 학교를 허가가 없고 한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탄압을 가하게 되는데, 1925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에는 '함남 영

무교회'에서 실시하는 '하기 성경학교'교사 '임봉원'을 호출하여 허가 유무를 질문하였는데, 허가없이 강습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허가없이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시켰고, 1928년 광주에서는 '광주 유학생회'가 3개 곳에서 5,600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학생의 사상이 불온하여 학생들에게 주의를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무조건 금지시켰다.⁸⁷⁾

2)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경영 실태

하기 아동 성경 학교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설립되다가 1924년부터는 교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거의 전 교회가 실시하게 되었다. 성경학교의 교사는 외지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서 봉사하며 보통 1명이 한 반씩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학생들은 4세로부터 17세에 이르는 무산 아동들이었는데, 1923년의 내쉬동 이 발기한 학교의 학생 중 80%가 학령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한 자였으며 교과 중에 언문이 많은 점으로 보아 글을 알지 못하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 성경학교의 교육 기간은 약1개월이었는데 오늘날의 1주일에 비하여 매우 긴 기간이었으며 오전에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전 오후를 다 응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930년대에 나온 교과서 및 교안에 따르면 오전에 모두 마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지고 있다.

1927년 6월 18일 동아일보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의 학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초등부는 8세 이하, 소년부는 9세-14세, 중등부는 12-14세, 고등부는 15세-17세로 구성되어 있다. 하기 아동 성경학교에서 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① 교사의 영적 준비 회합. ② 행진곡으로써 생도 입장. ③ 예배식. ④ 보고 및 묵념. ⑤ 음악교수. ⑥ 교과(성

87) 자료 : 동아일보, 1932년 8월 28일.

경동화, 성구암송, 성경 장절 찾기, 경기 등 기타). ⑦ 구안적 교수(절기에 따라서 과별 계획, 성극 또는 찬미가, 수공 등). ⑧ 폐교식(위생 강화, 행진곡으로써 퇴장)등이다.⁸⁸⁾

초창기에는 미국의 국제 하기 아동 성경학교 등과 세계 하기 아동 성경학교회에서 사업에 대하여 많은 보조금을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에 위임하였고 많은 국내 유지들이 보조함으로 인하여 경영에 큰 도움을 얻어 번창하여 각 교회에서 선출하여 조직 한 지방 위원회가 학교를 후원하고 감시하였다.⁸⁹⁾

4. 晝間 聖經學校 및 聖經 俱樂部 運動

1) 주간 성경학교

주간 성경학교는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1년간 6, 7세에 달한 아동을 표준으로 그 이상의 아동이라도 교육하는 학교로서, 장로교 계통에는 1928년 20개교에서 23명의 교사들이 513명의 학생을 가르친 사실과 그 다음해인 29년 33개교에서 38명의 교사가 1,144명의 학생을 가르친 것만 기록되었을 뿐 그 이후의 추세를 알 수가 없으며 1930년 Blair선교사가 주간 성경학교 교안을 출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주간 성경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문전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계신 것을 깨닫고 기초적 지식의 기능을 양성케 하기 위하여' 세워진 간이 학교로서 그 교과 과정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매일 오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⁹⁰⁾ 학생의 연령은 6, 7세 가량을 표준하지만 그 이상

88) 자료 : 동광 1927년 7월호, p.17.

89) Mrd. J. G. Holdcroft, Peninsula Hahn, 허마리아, 한석원 역, 하기 아동 성경학교 교안(중등부용)(경성 : 조선야소교서회, 1927), pp.1-30.

90) H. E. Blair, 주간성경학교(경성 : 주일학교연합회, 1930), p.1.

된 자로 가하다고 되어 있으며 일년을 30주일로 정하고 가르치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학교의 재정은 '다수한 금전이 없어도 되며 불과 4, 5원이면 충분하고 그도 없어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소규모 재정으로도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⁹¹⁾

학교의 비품은 '독본 한권, 흑탄 한 개, 분필 한통, 볼(공) 두 개, 여러 가지 물칠한 개쪽 수십개, 성경 찬미 한질'로 되어 있었고, 선생의 자격은 보통 학교 졸업 정도의 학식 있는 청년이나 교회의 제직자나 아이를 사랑하며 열심히 있는 자로써 성경을 잘 알고 교안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면 되도록 규정하였다.⁹²⁾ 매주 수업시간표 및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주간 성경 학교 수업 시간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교시	9:00-9:40	예배.수신	예배.수신	예배.수신	예배.수신	예배.수신
	9:50	휴식				
2교시	10:20	성경	산술	성경	산술	성경
	10:40	휴식				
3교시	11:10	창가	국문	창가	창가	
	11:30	휴식				
4교시	12:	국문	유희	국문	국문	유희

그 교과목을 살펴보면 국어과목은 '가갸거겨'에서 시작하여 '후휴히흐'로 끝나는 한글 학습과정이며, 각 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수는 1, 2, 3, 4,에서 시작하여 수의 개념과 덧셈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과목은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창가시간은 주로 찬송가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찬미시간이나 무궁화 노래 등 애국가를 가르치기로

91) H. E. Blair. 상계서, p.2-3.

92) H. E. Blair, 전계서, p.1.

하였다. 유희시간은 숨바꼭질이나 고양이와 쥐놀이 등 게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림시간이 있어서 간단한 세모나, 네모, 타원형 등을 중심으로 집, 사람, 쥐, 팽이 등 단순한 내용을 발전시켜 그리도록 하는 내용이다.⁹³⁾

2). 성경 구락부운동

성경 구락부 운동은(1929-1938) 1929년 평양 숭실대학 교수 ‘킨슬러레’ 의하여 무산아동과 학령 초과 아동의 단기교육을 위하여 세워진 교육 기관으로써 추운 겨울날 평양 종로에 있는 광문서관 2층에서 집없는 아동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그 시작이었다.⁹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 구락부 운동의 설립자인 ‘권세열’ 자신이 회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라는 잡지에서 ‘우리들은 몇 명의 거지 소년과 이층방에서 열심히 해 불려고 하는 한 쌍의 부부교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이야기를 해주며 기도하며 놀이를 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작은 관심은 소년들이 나아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옴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한 겨울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수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확장을 서둘러 마침내 선교부 내에 위치한 평양 성경학교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이 운동을 확대하여 1930년 가을에는 300명의 소년, 소녀들을 가르치게 되었다.⁹⁶⁾

야간공부는 ‘개척 구락부’란 명칭으로 명명되었는데 1934년까지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좋은 평을 얻게 되자 처음에 소년들에게만 실시하던 구락부 교육은 소녀에게도 신앙 생활과 배움의 길

93) H. E. Blair, 전계서, pp.7-127.

94) 권세열, 지도요강(서울 :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919), p.7.

95) 자료 : 지도자, 1963년 2월, p.5.

96) 주선동, 성경 구락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5), pp.33-34.

을 열어 주기 위해 낮에도 실시하게 되었으며,⁹⁷⁾ 급속히 발전하여 평양 성경학교, 여자성경학교, 신암, 서성리, 염창리 등 평양시내의 여러 교회에서 구락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의 구락부 교사들은 송실 전문학교 학생과 평양 신학교 학생 그리고 여자 성경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후에 중요한 한국교회 지도자들로 활동하게 된다.⁹⁸⁾ 이 사업은 1934년에 이르러 1500명의 남녀 학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급격한 성장에 위기의식을 가진 일제는 '권세열'박사를 소환하게 되었는데, 1934년 일본인 시학관 승인없이 진행되는 이 교육이 무산계층의 소년 소녀를 모아 공산주의 선전교육을 시키는 줄로 생각하고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구락부 사업은 복음운동이며 주일학교 운동과 유사함을 보고 복음운동 자체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나 '개척'이란 소년 성경 구락부로 고정되게 되었다.⁹⁹⁾

구락부 교육 구조는 총독부 학무국의 금지 명령으로 당시 보통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덴마크 체조를 실시했고 또 울밑에선 봉성화 같은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애국의 정신을 고취시켰다.¹⁰⁰⁾ 성경을 소재로 한국어 독본을 만들었고 지리, 산수, 자연과 같은 것은 국민학교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주 5일간 매일 3시간 1년간에 소정의 과목을 마치게 되어 있었으며 주중 1일 구락부 날로 정하여 일정한 순서를 통하여 건전한 신앙 생활을 습득케하고 개척 정신을 길러 주었다.¹⁰¹⁾

구락부 날 행사 때는 송전에서 3-4천명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특별히 체조는 그 당시에 큰 인상을 주었다.¹⁰²⁾ 이 구락부의 날은

97) 자료 : 지도자, 1903년 2월, p.7.

98) 자료 : 지도자, 1971년 3-4월, p.12.

99) 자료 : 지도자, 1963년 3월, p.7.

100) 자료 : 지도자, 1971년 3-4호, p.13.

101) 김양선, 전계서, pp.642-643.

<누가복음 2 : 52>에 근거한 예수님의 네가지 생활원리, 즉 예수모방, 사대생활, 자치훈련, 단체생활을 모방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과정으로서 주목할 만한데 종교, 지육, 체육, 봉사의 영역을 훈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구락부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영적 생활의 발전을 위한 순서인 예배이며, 그 다음에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음악 순서, 민주성 함양을 위한 사무처리, 구락부 체조와 단체경기를 통해서 육체를 훈련시키는 체육순서,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서 통상 순서이다. 통상순서는 독창성과 책임감과 협동심을 갖게하여 네가지 생활원리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¹⁰³⁾

1936년에 취임한 '미나미'총독은 황국 신민정책을 밀고 나가 모든 학생에게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 낭독하도록 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 상태 가운데서도 성경 구락부 운동은 꾸준히 발전하여 5,000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으나 1938년에는 구락부 운동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고 불응시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¹⁰⁴⁾ 이런 상황에서 1937년 6월 미 북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실정을 조사시킨 다음 1938년 3월말까지 한국 내의 기독교 학교들은 폐교 할 원칙을 세우고 이를 한국 주재 선교부에 지시하였으며 부득불 성경 구락부 운동은 중지되고 '권세열'도 소환명령에 의하여 귀국함으로써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¹⁰⁵⁾

V. 日帝下의 基督教 教育의 特性

102) 자료 : 지도자, 1971년 11-12월, p.15.

103) 권세열, 전계서, p.15.

104) 권세열, 전계서, p.84.

105) 고환규, "성경구락부의 역사적연구와 기독교교육에 끼친 영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1. 宣敎的 特性

한국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그 초창기에서부터 선교적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선교적 성격은 그 후의 한국 기독교 교육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접촉이 중요시된다. 교육은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방편인 동시에 그 자체가 선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¹⁰⁶⁾

초기의 사립학교 중심의 교육운동과 비교하여 일제하의 기독교 교육운동은 몇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초기의 사립학교가 주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었음에 반하여 야학이나 성경학교들은 주로 한국 교회와 신자가 주축이 되어 세웠으며 그 운영도 토착교회가 중심이 되어 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교육의 대상에 있어서도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부터 민중계층을 중심한 교육으로 현저한 전환이 있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한국교회가 성장함으로 독자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인 동시에 삼일운동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간구하려는 시도이다. 기독교 교육이 지니고 있는 선교적 의미에 있어서, 초기의 기독교 교육은 근대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적으로 교육활동을 벌이고 이를 통해 전통종교에 젖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신학문을 전달하여 크리스찬을 확보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나, 일제하의 변화된 상황, 특히 삼일운동 이후의 민중의 자각과 새로운 사상의 도입으로 인해 민족적 역

106) 전호진, 현대 선교신학의 동향과 급진주의 선교 사상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 논문집 제10집, 1982, pp.84-87.

량이 성숙함으로 인해 종래의 교육으로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한국교회 스스로가 몸부림치면서 대처해 나간 결과적 행위로 교육운동이 상향적으로 나간 점에서 이는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삼일운동 이후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조들이 수입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고개를 들고 자유주의 사상이 활개를 치면서 기독교에 대항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활발한 교육운동들을 전개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는 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흔들리는 민중계층을 바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느끼고 앞장서서 민중 교육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무산 계층이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자들에게 교회가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은 소극적 비판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 가운데로 뛰어 들어 복음과 함께 삶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교적 정신은 각 교사 및 학교 내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구현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학술 강습회는 대부분의 학생이 믿지 않는 자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을 통하여 기독교적 영향을 미침으로 많은 학생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주간 성경 학교 역시 아동들의 전도와 교육에 그 설립 취지를 두고 있는데 'Blair'는 그의 교안 서문에서 “어린 아동들이 학교 문전에 이르기 전에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깨달으며 흠이 없고 양심의 호센 타를 배양하고 한편으로 기초적 지식의 기능을 양성케 하여서 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되게 하며 악마 많은 세상에 완전무흠한 인격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¹⁰⁷⁾ 그 결과 많은 불신자들이 교육 기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 '김양선'은 하기 아동 성경 학교가 불신 아동 중 결신자의 비율이 50%이며 성경 구락부의 경우 결신자의 비율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로 회 총회 제18회 보고서에서는 1928년과 1929년에 하기 아동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의 수와 주간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1928년에는 하기 아동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의 수가 590명, 주간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의 수가 83명으로 1929년에는 하기 아동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가 311명, 주간 성경 학교 학생 중 교인 된 자가 53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숫자는 그 해의 학습인과 세례를 받은 자는 성인이므로 아동 중에는 더 많은 결신자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교회 운동은 본질상 기독교 복음을 증거 하려는 선교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선교 작업은 유치원에서의 유아로부터 야학에서의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에 골고루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2. 教育的 特性

일제의 교육정책은 우민주의 교육정책으로 초창기의 6면 1교정책에서 1면 1교정책으로 점차 변모해 왔으나 교육시설은 태부족하였고 입학하려는 아동은 계속 늘어나 입학난이 가중되어 왔다.

'주요섭'은 당시의 교육적 상황에 대하여 말하기를 "1929년 현재 조선인 취학율은 20%이며 일본인은 99%이다. 1면 1교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1면

107) H. E. Blair, 전제서, p.1.

1교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공립보고에서 겨우 학령아동의 3할을 수용하고 기타 사립학교에서 서당까지 합하여 기껏 1할을 수용하면 역시 4할 밖에는 더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¹⁰⁸⁾라고 했다. 더구나 당시 취학율은 도시 53%, 농촌17%로서 농촌인구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상태로는 농촌의 입학난은 중대한 문제였다. 또한 공립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치뤄야 하고 월사금도 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은 아예 입학할 꿈도 꾸지 못하였다. 한편 당시의 노동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반문맹의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⁹⁾

〈표20〉 1922년 노동자 교육 현황 상황

출 신	인 원	백 분 율
중등학교 졸업자	170	0.3
중등학교 중퇴자	339	0.7
보통학교 졸업자	4,969	10
보통학교 중퇴자	3,633	8
서당 졸업자	11,492	24
무교육자	27,480	57

위의 표는 당시의 노동자 중 57%가 무학의 상태에 있었으며 32%가 반문맹인 보통학교 중퇴내지 서당 졸업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시의 대부분의 성인이 문맹 상태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남녀차별 속에서 살아오던 여성들의 경우 그 교육적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교육적 봉사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는 정규 학교의 형태가 아닌 간이학교 형태의 학교였다.

108) 주요섭, 조선교육의 결함(서울 : 한국학, 1976), 제9, 10집.

109) 한국노총, 노동조합운동사(서울 : 한국노총, 1979), p.146.

기독교가 세운 민중 교육기관은 초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있었으나 그 중요한 관심은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기본상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일찍이 '곽안련'은 그의 목회학을 통하여 교회의 성인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장년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겨울철에나 여름철에 좋은 기회를 보아 야학을 설치하여 성인교육에 힘쓰면 유익이 많을 것이다. 정식학교가 아니므로 특별한 인허가가 없어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교육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많이 실시한다. 한국 교회에서 이 성인교육을 실시하면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다.”¹¹⁰⁾

앞에서 살펴 본 학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인가가 없이 운영되던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별 통제를 받지 않았으며, 주로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나 교회 및 연합 운동단체에 의하여 세워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해 나갔고, 그 교육 대상이 주로 무산계급이라는 데서 민중적인 교육기관이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서구 교육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적 교육기관에 대한 비판과 민간단체에 의한 소규모 교육기관의 설립주장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통제를 받지 않는 민중 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¹¹¹⁾

한국 교육사 입장에서 기독교의 교육기관들을 한국 민중의 문맹퇴치를 위해 한글을 가르치는 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민중의 의식을 각성시켜 봉건적이고 전근대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점은 큰 공헌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1920년부터 전개된 유치원 설립운동 역시 교회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국 유아 교육사에 큰 의미를 지닌 선구적 교육운동이었다.

110) 곽안련, 목회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5), p.203.p

111) 강동진, 전계서, p.9.

3. 民族運動的 特性

일제 지배하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운동에 있어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말에는 교육 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립 학교를 통하여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으며, 한일합방 이후에도 105인 사건 등 일제의 무단압제를 거치면서도 시들지 않고 계속되다가 삼일운동의 중심적 추진체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의 민족 운동적 성격은 1920년대 이후에 물산 장려운동, 절제운동, 농촌사업으로 나타나는 동시 교육운동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는데, 본고에서 살핀 학술 강습회와, 서영 구락부, 하기 성경학교 등은 이러한 교육운동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 교육운동이다. '홍이섭'은 기독교의 민족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교육운동의 민족적 성격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1920년대로 접어들어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진영의 활동에 대항 할 때에 있어서도 기독교측의 기독교 정신의 전파, 문학, 메스콤, 교육을 통하여 굳건히 한국에 있어 민족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부르짖었으며 사회를 선도하기에 힘썼다. 특히 Y.M.C.A.를 통한 월남 '이상재'의 청년지도에서 볼 수 있었던 바이다. Y.M.C.A.운동은 식민지화 과정 내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사회 운동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노동 야학의 개설을 그 어느 단체보다 앞서서 활동하였음을 볼 때, 이것은 기독교의 박애와 봉사정신에서 나왔던 것이다.”¹¹²⁾

112) 홍이섭. 한국근대사의 성격(서울 : 한국일보사, 1975), p.115.

교육운동의 민족적 성격은 각 교육기관의 중요한 내용이 한글이었다는 데서 한글교육을 억제하다가 마침내 한글 교육을 금지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글 교육기관으로서 국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어 한글을 배우게 할 정도였으며 교회가 세운 야학과 각종 교육기관은 중요한 한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 각급 학교에서의 찬송 및 창가시간은 민족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궁억’에 의해 지어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찬송가 495장으로 많은 기독교인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였으며, 불의에 대항하는 전투적 찬송들은 눌러 있던 백성들의 가슴에 진취적 기상을 심어 주었다. 특히 주간 성경학교 교안 중 어린 유아들에게까지 애국가를 보급한 점은 당시 교육의 민족적 성격을 보여준다.¹¹³⁾

일제가 이러한 민족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탄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북 예천읍 내 교회는 부인 야학을 개시하여 120명이 모이던 중 경찰서에서 조사한 후 허가없이 안된다고 금지한 후 해산시켰으며,¹¹⁴⁾ 1927년 10월 무주 구천동 기독교 청년회가 창립한 노동 야학50명이 회집중 1928년 9월 9일 경찰 당국이 중지시키고 금지하였으며,¹¹⁵⁾ 황해도 안군 동창포 기독교 청년회가 운영하던 노동야학에 대하여 1928년 12월 12일 주재소 순사가 도 경찰부 명령이라고 중지를 명령하였다.¹¹⁶⁾

교회가 경영하던 하기 성경학교에 대하여서도 경찰당국이 탄압을 가하였는데, 한남 영무 교회당에서 1925년 개최하던 아동 성경학교와 충남 홍성군 광천면 교회에서 1932년 실시한 하기 아동 성경학교는 각각 인가가

113) H. E. Blair. 전계서, p.20.

114) 자료 : 동아일보 1928년 7월 14일.

115) 자료 : 동아일보 1928년 9월 24일.

116) 자료 : 동아일보 1928년 12월 18일.

없다는 이유와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탄압을 가하였다.

민족의식이 식어 가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 민족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과 민중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민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다.

VI. 要約과 結論

본 논문은 일제하(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한국 기독교 교육과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그에 대한 요약·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 約

1) 본 연구의 배경은 19세기 중엽 초기 개신교의 선교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으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교육은 소수 양반이나 사대부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서당이나 서원이 그 역할을 대행했다. 1905년 일본의 강점 이후 한국 민족은 일제의 외적 강압이 있었으나, 오히려 내적 신앙심을 강화시키며 기독교 교육활동의 전환기가 되었다.

2)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기독교 교육은, 1920년대에는 국민교화운동으로 국권 회복노력에 이르러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일제는 문단정치를 문화정치로 바꾸고, 산미 증식계획으로 회유책을 쓰며 결국에는 농민을 약탈하기까지 하였다.

1930년대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동화정책과 신사참배 강요와 민족교육의 말살운동을 통하여 황국신민화를 교육의 정책과 함께 기독교계 학교에 탄압하여 기독교계 사학은 일제에 의해 굴복 당하였다.

3) 기독교에 의하여 추진된 학술 강습회는 비정규의 민중 교육기관으로 일반 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낮에는 학술 강습회로 밤에는 야학이라 불렀다. 교육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교육자층으로 구성되었고, 지식 전달 중심으로 성경과 찬송가 등, 야학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 하기 아동 성경 학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주로 학교에 가지 못한 4-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1개월간 성경과 한글을 가르쳤다.

4) 주간 성경학교는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1년간 6, 7세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간이 학교로서 교과과정은 1년으로 매일 오전 시간을 할애하였고 교과목은 예배, 성경, 산술, 창가, 유희, 국문 등이었다.

성경 구락부 운동은 '권세열'선교사가 1929년 추운 겨울날 평양에서 온 여섯 명의 거지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어, 집 없는 아동들과 소녀에게도 신앙 생활과 배움을 열어 주기 위해 낮에도 교육하게 되었다.

5) 기독교는 학술 강습회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일반 교육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하기 성경학교나 주간 성경학교 등 성경 구락부는 한글 교육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며 교사를 통하여 많은 학생이 믿음을 갖게 됨은 교육활동과 함께 선교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제 말기에 불신자들은 자녀를 교회로 보내서 한글을 배우게 할 정도였으며 기독교 학교에서의 찬송 및 창가시간은 민족의식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주간성경학교 교안 중 어린 유아들에게까지 애국가를 보급한 점은 당시 교육의 민족적 성격을 보여준다.

2. 結 論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중엽 초기 개신교는 의료와 교육으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는 대원군과 민비의 대립된 갈등으로 혼란하며 관직을 뇌물로 매매하고 양반은 농민을 착취하는 등, 교육은 소수 양반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만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선교활동을 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민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교육의 선교활동을 위한 방편이 되었다.

둘째 1920년대와 1930년대 기독교는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민족 해방운동과 민중 해방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일제에 의해 종교탄압과 신사참배의 강요, 민족교육의 말살정책 등으로 기독교의 암흑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외적 강압은 오히려 민족애를 갈망하며 내적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등 종교적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민족 교육운동의 하나로 교회 교육활동이 성행하였다. 학술 강습회는 복음 증거와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을 주로 하였고, 하기 아동 성경학교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일제하의 기독교 교육은 민중 교육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면서 민중을 계몽하고 일깨우며 신앙심을 기르는데 일조하였고, 민족 교육운동으로서 공헌한 바가 크다.

넷째 주간 성경학교는 입학하기 전 1년간 6, 7세에 아동들을 표준으로 한 간이 학교로 매일 오전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와 성경, 유희, 국문, 산술, 창가 등을 가르쳤으며, 성경 구락부 운동은 '권세열'선교사가 집 없는

아동들을 가르친 것으로 시작하여 성경을 소재로 독본을 만들며 신앙생활을 습득케 하였다. 당시에 아동들은 학교교육이 필요하였으므로 학교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교육적 악조건이 기독교에게는 교육적인 호조건이 되었다.

다섯째 일제하의 개신교 기독교 교육은 선교적 의지를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며 교육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일제하의 한국 기독교 교육은 민중의 문맹타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일제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과 제자훈련, 사회 봉사활동 등을 추구하였다. 이는 기독교 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提 言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우리의 교육은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 복음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교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장애를 가져다준다. 서구의 여러 나라처럼 유아기나 유년기부터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창조론과 유인론을 동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요구된다. 교육부가 지정해 주는 교재 사용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시각이 아닌 무신론자들의 사상을 담은 교재로서 기독교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혼돈은 기독교 교육의 과제로 남게 된다.

둘째 무신론적인 사상과 이성적인 사고만이 팽배해져 있는 현실에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는 변해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탈바꿈하는 시대에 한국의 교육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교육계의 현실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돕는 사회 교육기관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청소년의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 교육기관으로서, 노후에 안식 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탁아 보호 교육기관으로서 협력하는 사회 봉사기관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실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單 行 本

1) 國內文獻

- 곽안련. 목회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5.
- 곽안련. 한국교회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0.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서울: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 김윤경. 조선문학 반언학사. 경성:학출판협회, 1938.
- 김현자. 기독교 여성 운동사. 서울: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74..
-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서울: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74.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기독교교회사, 1982.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8.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 송건호. 한국 현대사론. 서울:한국신학 연구소, 1979.
- 장종철. 기독교 교육역사.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 엄요섭. 한국기독교 교육사. 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59.
-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서울:현대교육총서 출판부, 1964.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지식산업사, 1984.
- 정재철. 일제식민주의 교육의 양태.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편, 역사

와 기독교 제6집 교육과 사회. 서울:민중사, 1983.

조동걸. 일제하 한국 농민운동사. 서울:안길사, 1979.

주요섭. 조선교육의 결합. 서울:한국학, 1976.

주재용. 역사와 신학적 증언.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한석원. 하리아동 성경학교의 지침. 서울:동공, 1927.

홍이섭. 한국근대사의 성격. 서울:한국일보사, 1975.

2) 국외문헌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1896.

Sweets, Henry. 광안련 역. 기독교종교와 교육, 경성:조선야소교회서,
1927.

H. K.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2. 論 文

고환규. 성경구락부의 역사적연구와 기독교교육에 끼친 영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김성재. 민족교육과 민중운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정임. 일본제국주의하에서의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노치준. 일제하 한국개신교 운동의 사회학적연구(192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서광선. 한국문화와 기독교 교육신학 서설. 장로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송길섭. 한국 기독교의 교육운동.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오성광. 일제하 한국기독교 교육이 성격에 대한 고찰(1920년대와 1930년대의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유승희. 정치적 증거로서의 순교(일제하 한국기독교의 신사참배항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은길원. 성경 구약부의 사회 교육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이만열. 개신교의 전래와 일제하 교회와 국가. 「국가 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1982.
- 이영일. 한국기독교교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장경자. 일제하의 한국개신교 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장창진. 일제하 민족문제논쟁과 반종교운동(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반

- 기독교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전호진. 현대 선교신학의 동향과 급진주의 선교 사상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 논문집 제10집, 1982.
- 주선동. 성경 구락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한규원. 일제하 한국 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탁지일. 일제하 한국기독교 신비주의적 종파운동의 사회·지역적 배경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3. 定期 刊行物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제1권-제23권.
 동광. 1927년 7월호.
 동아일보. 1920년-1939년.
 지도자. 1971년 3-4월.

4. 其他

- 강병주. 하기성경학교교과서. 경성:조선예수교장로회교육부, 1935.
 권세열. 지도요강. 서울: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919.
 한국노총. 노동조합운동사. 서울:한국노총, 1979.

진단학회 한국사. 최근세 편. 서울:을유문화사, 1963.

대한Y.M.C.A연합회. 한국Y.M.C.A반백년. 서울:대한Y.M.C.A연합회,
1979.

H. E. Blair. 주간 성경학교 교안. 경성:조선주일학교연합회, 1930.

J. G. Mrd. Holdcroft, Peninsula Hahn, 허마리아. 한석원 역. 하기 아동
성경학교 교안(중등부용). 경성:조선 야소교서회, 1927.

ABSTRACT

A Study on Korean Christian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under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1920s and the 1930s-

Park, Kyoung-ra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Korean Christian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 under Japanese imperialism(from the 1920s and the 1930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the Protestant in Korea began to engage in missionary work by means of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Korea was domestically confused due to the confrontational conflict between Daewonkun and Minbi, the transaction of government offices by bribery, Yangban's exploitation of the peasantry, and the like. Only educational institutions existed for a handful of Yangban's children. This background became the great impediment to engaging in missionary work but served as the makeshift to bear testimony to gospels for the populace and propagandize Christian education.

Second, Christianity in the 1920s and the 1930s was confronted with the dark age on account of Japanese crackdown on religions, the coercion of Christian believers into visiting the Shinto shrine, the policy to annihilate national education and the like while staging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nd the populace liberation movement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Japanese external coercion aroused religious characteristics such as inspiring Christian believers' inner faith, and so on.

Third, church educational activity was prevalent as part of the national educational movement. The academic workshop was largely responsible for providing Christians with testimony to gospels and education oriented to knowledge dissemination. The summer children Bible school provided children with the same activity of teaching the Bible and Hangeul(Korean alphabet)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did.

The church providing people with Christian educ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performed a great role as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populace, assisted the populace in being enlightened, awakened and nurturing their religious faith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society as the national educational institution.

Fourth, the weekly Bible school was the temporary school intended for 6-and 7-year children for one year prior to their entrance to school, which taught children church service and the Bible, play, Korean language, arithmetic, song and the like. The Bible club movement began with the missionary 'Kwon Se-yeol' teaching

homeless children, made the reader for children with the Bible as material and allowed them to engage in living a religious life. The church could provide schooling with children along with the gospels as they needed schooling at that time. The bad educational condition of our Korean people became the favorable one for Christianity.

Fifth, the Protestant Christian educ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took root deeply in the Korean society with the missionary will, thereby coming to take on educational character. Korean Christian education performed a role a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 by instilling the spirit of national autonomy as well as striving to do away with the illiteracy of the populace. Christian education under Japanese imperialism pursued the essence of Christian education such as the mission of missionary work, disciple training, social service activity and the like. This makes a good illust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Christian education. It can be seen that engaging in activity makes a good indic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Christian education.